**말라기** 12/27/20

**제목과 배경:** 말라기는 ‘나의 사자’(my messenger)라는 뜻이며,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(1:10) 번영의 시기는 오지 않아서 백성은 가뭄, 흉년가 기근으로 고통 받으면서 이를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받아들였다.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직하지 않게 섬겼으며,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패역한 상태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.

**저자와 기록연대**: “말라기”라는 단어가 3장 1절에 나오고,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여호와의 사자들로 불리웠으므로, 말라기가 인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.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하며, 말라기가 저자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(1:1). 말라기 선지자는 에스라, 느헤미야와 동 시대 인물로 보이며, 본서의 기록 연대는 개혁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주전 460-430년 경으로 보인다.

**주제**: 말라기의 메시지는 책망과 경고로 가득 차 있다.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을 책망하고 (1:2-5)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꾸짖는다 (1:6-2:16). 성전을 재건한 후 너무도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. 회개와 개혁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(3:6-12). “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”(4:5)이 이르고 있지만, 말라기는 그 백성을 위로하면서 경고한다.

**개요** (여섯 논쟁)

1.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(1:1-5)
2. 제사장들의 불신앙 (1:6-2:9)
3. 백성들의 불신앙 (2:10-16)
4. 도덕적, 영적 죄들 (2:17- 3:5)
5. 온전하지 못한 십일조와 헌물 (3:6-12)
6.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구별하실 것아다 (3:13-4:3)
7. 결언 (4:4-6)